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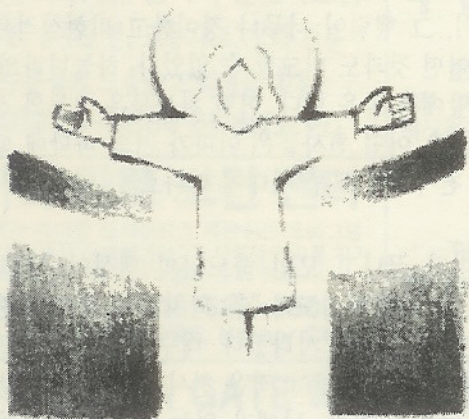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주님 승천 대축일 (성모성월)
제27권 25호 (다해) 2007.5.20

[묵상]



구름처럼 햇살처럼

땀으로 눈물로 마지막엔 피와 살로

들판마다 골짜기마다 적시고

훈훈한 입김으로 안개처럼 피어올라

구름처럼 오르시어 햇살처럼 내리시네.

◆ 한광구 요셉 · 시인 / 최창원 니콜라오 · 화가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일을 돕는 연락처) : (310)962-8414
연명회 (장례식 연락처) : (213)458-0396

수요일	평일 미사	오후 7:30
목요일	평일 미사	오후 7:30
금요일	평일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 (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주일학교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 행사표

화요일	백삼위 신앙학교 (4단계 7월2일까지)	오후 7:30
수요일	면담의 날 (신부님, 수녀님) 거룩한 독서 (Lectio Divina) 예비자 교리반	오후 2:00 오전 10:30 오후 8:00
목요일	병자영성체 (1째주) 성 시간 (첫목요일) 성령 기도회 예비자 교리반	오전 9:30 저녁 미사후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거룩한 독서 (Lectio Divina) M. E. Sharing (3째주) 울뜨레아 (4째주) 거룩한 독서 (Lectio Divina)	오전 9:30 오후 7:00 오후 8:00 오후 8:00
토요일	유아세례 (4번째 토요일) 배론 청년모임 때제기도모임 (2째주 토요일)	오후 6:00 오후 5:00 오후 8:30
주일	병자 영성체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요셉회/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 대건부부회/원서부부회 3째주 -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가정의 날	오전 중 오전 9:00 오후 1:00 오전 9:0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박상대 마르코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구마리아네 (310)326-4350 Ext.102
명협회장 : 유철희 바오로 (310)320-3697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특전미사	(연)장루수
	(생)문영일 안토니오 & 신혜숙 올리아, 민영준 마르코
주 일 낮 미사	(연)손석조 마리아, 김중철 & 문우선, 이순자 테레사 김시형 시릴로, 정학조 도마 & 최인복 발바라, 백마리아 정창조 헬록스 & 최제선 루시아, 양갑순 마리아, 정윤 요셉 정인수 막달레나 & 정인황 방지거, 석선전 안젤로 김인영 베드로, 김형진, 김창배 파스칼, 이현호 요한 여영자 마리아, 데니스웨버
	(생)김정연 브리짓 & 서영 엘리야스 이종민 요셉, 이유진 대견안드레아 박태준 요셉 & 막달레나 가정 박상대 마르코 신부님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사도행전 1,1-11

화답송 ①환호소리 높은 중에 하느님 오르시도다.
하느님 오르시도다.
<전례성가 73 예수 승천 대축일>
①만백성 너희들은 손뼉을 쳐라.
기쁜소리 드높이 주님 부르라.
주님은 지존하고 지엄하시다.
온 누리의 크옵신 임금이시다.②
①환호소리 높은 중에 하느님이 오르시도다.
나팔소리 나는 중에 주님 오르시도다.
노래하라, 노래하라, 하느님께 노래하라.
고를 타며 우리왕께 노래를 하라.③
①하느님은 온 땅의 임금이니 몇지게 고를 타며
노래 부르라. 하느님이 못나라에 왕하시도다.
거룩하신 어좌에 앉으시도다.④

제 2독서 에페소서 1,17-23

복음환호송 ①알렐루야.
①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②

복 음 루카 24,46-53

영성체송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알렐루야.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	낮 미사
미사곡	51~58	33~42
입당	162	172
봉헌	264	315, 266
성체	303	301, 292
파견	169	165

✦ 거룩한 미사에 대한 카탈리나의 증언(6) ✦

너희가 속죄의 제물로서 너희 자신을 바치는 것을 주님께서는 가장 마음에 들어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여라. 그러면 예수님은 거룩한 미사 중에 하늘에서 지상으로 내려오실 때, 당신의 공로를 통해 너희를 변화시키고 바꾸신다. 어떻게 사람들이 아버지께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려야 하는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음을, 보잘 것 없음을, 자기 자신이 지은 죄를,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의 공로와 함께 희생 제물로 드릴 때, 그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받아들여진다."

그 광경이, 그 행렬이 너무나 경이롭고 비현실적으로 아름다워서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었다. 하늘나라의 모든 존재들이 제대 앞에서 절을 했다. 어떤 천사들은 그들의 선물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어떤 천사들은 이마가 거의 바닥에 닿도록 무릎을 꿇었다. 천사들이 모두 제대에 다다르자, 그들은 사라져 보이지 않았다.

예물 준비가 끝나고 모인 하느님의 백성이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를 외치자 갑자기 집전하는 사제들 뒤에 있던 모든 것이 사라졌다. 대주교의 왼쪽 뒤편 비스듬한 방향에 수천 명의 천사들이, 작은 천사, 큰 천사, 큰 날개의 천사, 아주 작은 날개의 천사, 날개가 없는 천사들이 아까 묘사했던 천사들처럼 모두 사제와 복사가 입은 흰 제의 같은 하얀 옷을 입고 있었다. 모두가 기도하는 자세로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흠숭의 표시로 머리를 숙였다. 사람들은 아주 많은 성가대가 여러 음성으로 노래하는 것 같은 훌륭한 음악을 들었다. 그리고 모두가 한 목소리로 하느님의 백성과 함께 노래했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모든 기적 중의 가장 경이로운 기적의 순간, 성변화의 순간이 왔다. 대주교의 오른쪽 뒤편 사선 방향으로 많은 사람들의 무리가 보였다. 그들은 똑같은 파스텔톤의 겹옷을 입었는데, 장밋빛, 연둣빛, 하늘빛, 라일락빛, 노란빛, 한마디로, 여러가지 밝고 연한 색의 옷을 입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똑같이 기쁨에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모두 나이가 비슷해 보였다. 그러나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각자 나이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모두 얼굴이 비슷했다. 주름도 없고 행복한 표정이었다. 그들은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라고 노래하는 사람들 곁에 모두 무릎을 꿇었다.

그때 사랑하을 성모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들은 모두 하늘나라에 있는 성인들과 복자들이다. 그들 중에는 이미 하느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는 너희 가족의 영혼들도 있다."

그리고 갑자기 나는 지극히 거룩하신 동정 마리아를 보았다. 거기 대주교 바로 오른쪽에..... 미사를 집전하는 대주교에게서 한 걸음 뒤, 바닥에서 조금 떠 계셨는데 매우 곱고 값진 천위에 무릎을 꿇고 계셨다. 그 천은 마치 수정처럼, 맑은 물처럼 투명하고 빛났다. 지극히 거룩하신 동정 마리아께서는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주의를 기울여 지극한 존경심으로 집전 사제를 바라보았다. 거기서 그분은 나를 보지 않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내 마음 속에 직접 말씀하셨다. ◆

● 카탈리나 리바스 / 다음 주에 계속

하늘에 계신 우리 압바(Abba)!

1960년대 소련의 우주 탐험가인 가가린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늘에서 하느님을 찾아보았지만 신은 우주 어디에도 없었다.” 그 후 미국의 우주인이 아폴로 우주선을 타고 달을 탐험하고 돌아와 기자회견 도중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달에 머무르는 동안 신의 존재를 아주 가까이에서 체험했다.”

이 두 사람은 같은 곳에 가서 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한 사람은 하느님을 본 듯 이야기했고 다른 한 사람은 하느님이 없다는 확신을 더 강하게 갖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이었다면 다시 확인이라도 해서 누구 말이 옳은지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의 진리는 증명할 수 없는 정신세계의 것이고 각 사람의 믿음 안에서만이 객관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곳에서도 신을 본 사람은 없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신은 우리 가운데 머무를 것이다.”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드릴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느님은 하늘에 계시는가? 하느님이라는 우리말도 ‘하늘’에 ‘님’이 합쳐서 ‘하늘님’, ‘하느님’을 표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표현은 하느님의 무한하심, 만물의 시작이요 끝이며, 우리 인간의 손길이 닿을 수 없는 차원, 지상에 머무는 우리의 차원과 전혀 다른 차원임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차원에 계신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실현시켜 주신 것입니다.

압바(Abba)란 ‘나의 아버지’란 뜻으로, 아버지께 대한 신뢰와 애정에 찬 아람어 호칭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내는

주님 승천 대축일의 의미는 지극히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심으로써 우리도 하늘의 차원으로 승격될 수 있음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압바(Abba)께 오르심으로써 우리도 하느님의 영역으로 다가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큰 구원의 선물을 받은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제1독서에서 그 대답을 명쾌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갈릴래아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며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승천하신 저 예수님께서서는, 너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사도 1,11).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일상의 삶 안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증언하고 복음(福音)을 전하는,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실천하지 않는 믿음, 행동하지 않는 신앙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나날들을 미움의 시간표를 빼곡히 채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반성하며,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된 하느님 나라의 완성을 향하여, 두 발을 땅에 딛고 하늘의 압바(Abba)를 그리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겸허한 신앙을 청해 봅니다. ◆

● 김지영 사무엘 신부 · 미아3동성당 주임



이번 주 전례 봉사자

다음 주 전례 봉사자

이번 주	토요 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이번 주	토요 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최태훈 아오스딩	최성자 카타리나	최진수 에우세비오	해설자	강정현 시몬	신덕례 데레사	이진향 아네스
제1독서자	우경석 요한	이민상 요한	최영신 프란치스코	제1독서자	김정은 세실리아	박진수 스테파노	오세원 아나타시오
제2독서자	민슬기 로사리아	황지영 안젤라	변혜경 율리아나	제2독서자	이원애 에스터	박혜경 레나타	권순길 세실리아
제물봉헌자			토 동 2, 4반	제물봉헌자			토 북 3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되도록 일찍 옵시다.
- ◆ 가정의 성화와 레지오 재창단을 위한 묵주기도는 계속 봉헌합니다. 봉헌하신 묵주기도는 게시판에 기록합니다.
- ☞ 지난 주간 합계: 2,324단 ☞ 총 합계: 127,134단

◆ 백삼위 신앙학교 제4단계 개강

- 매주 화요일 오후 7시30분 (7월2일까지), 성전
- 본당신부님 주일 강론 및 신앙학교 Cassette Tape이 사무실에 준비되었습니다.

◆ 제6차 백삼위 성령세미나

- 6월5일(화)~10일(주일), 성전
- 화~목: 찬미-오후 7시, 미사-7시30분, 강의-8시
- 토: 강의-토요특전미사(오후7시) 후
- 주일: 찬미-오후1시30분, 강의-2시, 파견미사-3시30분
- 주제: “주님과 함께 하는 여정”
- 강사: 임언기 안드레아 신부, 한국 미리내 성지
- 수강료 없습니다.

◆ 주일 학교 고등부 전진

- 6월1일(금)오후 6시, St. Margaret Mary Church
- Rehearsal: 5월21일(월), 오후 7시, St. Margaret Mary
- Reflection: 5월31일(목), 오후 7시~9시

◆ 초.중.고등부 세례 및 첫 영성체

- 참고: 6월9일(토), 오후 5시
- 총연습: 6월9일(토), 오후 5시30분
- 세례식: 6월9일(토), 오후 6시
- 첫 영성체: 6월10일(주일), 낮미사
- 축하식: 6월10일(주일) 낮 미사후, 강당

◆ 본당 수녀님 북미주 한인 수도자 피정 참석

- 5월21일(월)~31일(목)
- 은혜로운 피정이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백삼위 가족 한마당 체육대회

- 오늘 주일, 운동장
- ▶ 낮미사: 오전 10시30분(임시 변경된 시간입니다.)
- ▶ 11:30: 개회식
- ▶ 12:00: 지능게임
- ▶ 12:30~1:30: 점심 각 구역별
- ▶ 1:30~5:00: 굼뎡이 달리기, Hole in One, 박개기 줄다리기 등, 온 가족이 즐길 수있는 게임
- ▶ 5:00 ~6:00: 폐회식, 주변정리
- ▶ 6:00: 뒤풀이-백삼위 가족 한마당 노래자랑
- 청팀: 토렌스 남, 하버/칼슨, P.V.
- 백팀: 토렌스 동, 서, 북
- 복장: 백삼위 모자, 본당 셔츠, 편의복
- 푸짐한 노래자랑 및 추첨 상품(Raffle Ticket)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공동체 단합과 화성화를 위한 이자리에 많은 신자들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백삼위 가족 한마당 체육대회를 위해 Donation하신 이문중 바오로님께 감사드립니다.

◆ 주일 학교 Summer Camp 신청

- Camp: 7월13일(금)~15(주일)
- Woodspring Wind, Julian, CA (Food, Cabin 제공됨)
- 캠프비용: \$102 (학생부담 \$70, 본당 보조 \$32 + Bus)
- 신청마감: 6월17일(주일)까지

◆ 주일 학교 백삼위 축구부 연습 및 게임(vs. 성마리아 성당)

- 연습: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본당 운동장
- 게임: 6월3일(주일) 오후 4시, 장소 차후 알림
- 대상: 2학년~6학년
- 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바랍니다.

◆ 거룩한 독서

- 준비물: 가위
- 5월30일 수요일 임시 휴강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강태홍 김병록 김병태 김상근 김 옥 김인열 김재연 류인섭 문충환 민기남 박선행 박순자 박영룡 박태준 방세훈 안동훈 우영희 윤석구 이귀분 이용무 이일길 이정희 정동호 정인식 조동욱 조화숙 차인수 천광락 현석주 홍석철 홍주희 황지영 익명 한길선례 합계: \$2,790	성전헌금	강태홍 김병록 김병태 김상근 김 옥 김인열 김재연 문충환 민기남 박순자 박영룡 방세훈 안동훈 우영희 이귀분 이용무 이정희 정동호 조화숙 차인수 천광락 현석주 홍석철 홍주희 황지영 익명 한길선례 합계: \$3,840
미사헌금	\$ 3,023.25	감사헌금	박종열 정열모 한길선례

공지사항

◆ 한국학교 임시 휴강

- 본당 체육대회와 Memorial Day 연휴로 오늘 주일과 다음 주 5월27일은 수업이 없습니다.

◆ 천교자리(주일 점심 나누기) 봉사 담당 소공동체

- 5월20일: 본당 체육대회
- 5월27일: 하버/칼슨 1반 (장터 국수 \$3)

◆ 혼인공시 ◆

◆ 혼배 예정자: 서완덕(수요교리반) / 그레이스 Isabella

- 일시: 7월21일(토), 오전 11시30분
- 신랑측 부모: 서성현/이학숙
- 신부측 부모: 민경근 베드로 /민원희 안나
- ※ 위의 사람이 혼인하는 데 장애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무실로 연락해 주십시오.

남가주 소식

◆ 미주 가톨릭방송에서 감사 인사

- 미주 가톨릭 방송 기금마련 제10회 김수환 추기경배 골프 대회에 참석해 주신 각 성당 본당 신부님, 광고 후원자, 152명의 출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이번 행사를 통해서 마련된 기금은 총 \$16,843입니다.
-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는 미주 가톨릭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제20차 성령안의 생활 세미나

- 5월31일(목)~6월3일(주일) 접수시작 목요일 오후3시
- Mater Dolorosa Passionist Retreat Center
700 N. Sunnyside Ave., Sierra Madre CA 91204
- 강사: 임언기 안드레아 신부
- 대상: 성령 체험을 원하는 모든 교우
- 참가비: \$250
- 문의: 각성당 기도회장 or 성령봉사회 (818)480-1615
- 주관: 남가주 성령 쇄신 봉사회

◆ 제16차 선택주말 참가자 모집

- 8월3일(금)~5일(주일)
- Mary Joseph Retreat Center
5300 Crest Rd., R.P.V., CA 90275
- 대상: 22~35세 미만의 미혼 남녀
- 신청 마감: 6월30(토) ● 참가비: \$150
- 문의: 남가주 선택 협의회 (714)713-0131

이번 주 단체 모임

본당 체육대회

운동장

다음 주 단체 모임

사목 상임 위원회

오후 1시, 강당

소공동체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장		김순희 모니카 (310)328-1817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렌스 동 유현자 안나 320-3697	1	김양금 안나 518-3041	김양금 안나 518-3041
	2	신중철 아브라함 949-679-4321	정기은 비오 618-9775 5/12(토) 오후 7시
	3	정정숙 레아 791-5696	체육대회 참가 5/20(주일), 오전 11시30분, 성당
	4	권본경 율리아 834-2831	형제반 1제 수 오후7시, 성당 자매반 3제 수 오후7시, 성당
토렌스 서 김숙희 오티리아 782-8549	1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체육대회 참가 5/20(주일), 오전 11시30분, 성당
	2	이명순 크리스티나 374-1572	체육대회 참가 5/20(주일), 오전 11시30분, 성당
	3	김미성 미리암 798-6540	김미성 미리암 798-6540 5/11(금) 오전 10시30분, 성당
	4	이은록 요셉 371-4645	이은록 요셉 371-4645
토렌스 남 김씨니 클라라 612-8840	1	박정자 세실리아 527-7471	체육대회 참가 5/20(주일), 오전 11시30분, 성당
	2	임진희 한나 720-7898	체육대회 참가 5/20(주일), 오전 11시30분, 성당
	3	장주란 마리아 486-1982	장주란 마리아 486-1982 5/11(금) 오후 7시30분
	4	이정훈 안셀모 908-8823	이정훈 안셀모 908-8823 Club.cyworld.com/103
토렌스 북 권순길 세실리아 365-2183	1	권병연 리디아 (소공동체 차장) 938-3255	체육대회 참가 5/20(주일), 오전 11시30분, 성당
	2	이복임 엘리사벳 516-0818	체육대회 참가 5/20(주일), 오전 11시30분, 성당
	3	현영화 베로니카 530-2136	현영화 베로니카 530-2136
하버 칼슨 박혜경 레나타 (소공동체 차장) 808-5005	1	최경애 프란체스카 326-6587	체육대회 참가 5/20(주일), 오전 11시30분, 성당
	2	김희복 아네스 326-2283	체육대회 후 천교자리 5/20(주일), 오후 5시, 천교장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370-6589
P. V. 이정숙 스테파니 755-1794	1	홍정란 클라라 544-6290	최진수 에우세비오 377-0345 5/11(금) 오후 7시30분
	2	김명재 아가다 541-3687	김병학 대견안드레아 544-4807 5/18(금) 오후 7시30분
	3	진애경 율리아나 541-5370	김용명 프란체스코 544-9532 5/11(금) 오후 7시
	4	석기순 엘리사벳 265-0495	석기순 엘리사벳 265-0495

성모님 앞에 선 “나”

달과 같이 아름답고 해와 같이 빛나시며, 사탄과 그 무리들에게 진을 친 군대처럼 두려운 분이신 성모님께 여러분 자신을 맡기시고, 충성과 덕행과 용기로서 우리 백삼위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는 여러 형제자매들에게 감히 이 글을 올리게 되어서 저 자신이 너무나 두렵고 왜소함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2세 되던 해인 1921년 9월 7일에 레지오 최초의 브레시디움을 설립한 아일랜드의 더블린이라는 소도시 출신의 레지오 마리에 창설자인 프랭크 더프 (Frank Duff)를 생각하면 더 더욱 그러합니다.

그러나 저는 더 이상 외롭고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아침저녁 산책을 할 때나 어디를 갈 때나 묵주로 무장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묵주가 저에게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성자께로 이어주는 살아 있는 징검다리이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본당 교우 한 분께서 여러 사람이 모여 다과를 나누는 친교장에서 말하기를 “이 파비아노 형제님은 길을 다닐 때 묵주를 손에 쥐고 다니는 것을 여러 번 보았다.” 고 한 말이 기억납니다.

공교롭게도 저의 주변에는 너무나 많은 이교도들이 있고, 자신만의 주장을 앞세우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만약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면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하는 염려가 앞섰고, 그래서 어디를 가나 저는 보검과 같은 묵주를 지니고 다닙니다. 저는 매사에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는’, 말하자면 너무 지나치게 신중했던 게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피에 추기경 (Cardinal Pie)이 하신 말씀 중에 “신중한 태도가 판을 치면, 용기 있는 태도는 도저히 발붙일 곳이 없게 된다. 그리고 우리는 지나치게 신중하기만 하다가는 결국 죽고 말 것이다.” (레지오 마리에 공인 교본 347 페이지)는 글을 읽고 난 뒤, 신중보다는 용기 있는 쪽으로 신앙생활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못 사람들이 꺼려하는 일들에 적극적으로 도전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운 사람에게 정을 주는 일, 싫어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일, 별것 아닌 잘못에도 회개하는 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근본정신인 사랑에 이르는 용서와 화해의 덕목이라고 사료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이정표가 되는 명언이 생각납니다.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것은 천국의 문을 여는 것이다.” 이 명언을 가슴 깊은 곳에 두고 늘 되새겨보곤 합니다.

언젠가 우리 반 반모임에서 냉담자들의 명단을 받아 전화로 통화해 본 결과, 신자 서로 간에 대한 많은 고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한 지붕 밑에서 신앙생활을 함께 했던 형제자매들인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들과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공유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성모님과 함께 묵주신공을 드릴 때, 쉬는 교우들을 위해서 요엘서 2장 13절에 “언제라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나에게로 돌아오라. 탄식하고 가슴을 치고 울어라. 옷만 찢지 말고 심장을 찢고 너희 하느님 야훼께 돌아오라.”는 구절을 기억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50년, 60년대에는 “참목이 굵이요, 웅변은 은이다.”라는 말이 설득력 있게 들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전과 다릅니다. 적어도 우리 신앙인들만큼은 불의를 보면, 곧 바로 정의의 불은 피가 끌어 솟구쳐야 합니다.

게이나 레즈비언들이 Homo-sexual Marriage를 하는 것을 보고 안주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행스럽게도 2004년 2월 8일에는 보스턴 대교구 신자들이 주의회 의사당 앞에서, 그해 2월 12일에는 샌프란시스코 교구의 신자들이 시장 관사 앞에서 동성결혼 증명서 발급 중단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 동성결혼은 창세기 2장 24절에 명백히 계시된 창조주의 창조의지에 정면 도전하는 행위이며, 이것을 좌시하면 구약시대 하느님께 대한 죄악 때문에 불과 유황으로 멸망한 도시인 ‘소돔과 고모라’의 전철을 밟지 말라는 법이 어찌 없다고 보겠습니까?

5월의 성모성월을 지내면서, 성모님 앞에 서서, 성모님과 함께, 매일 고달프게 일한 손에 묵주를 들고, 다소 곳이 묵주기도를 드리는 모든 형제자매님들의 모습을 그려보며, 저는 오늘도 행복해 합니다. ◆

● P.V. 3반 이병권 파비아노